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8.24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미국 지역사회의 데이터센터 반대와 엔비디아의 AI인프라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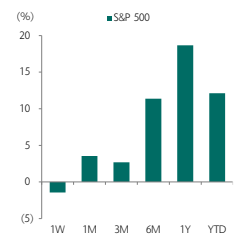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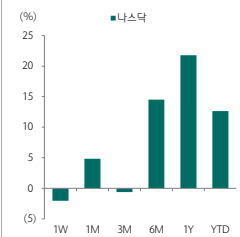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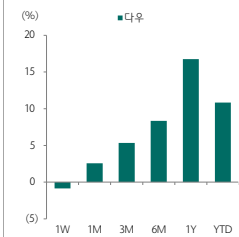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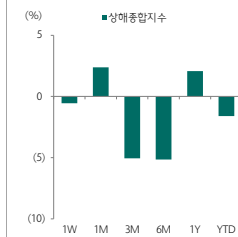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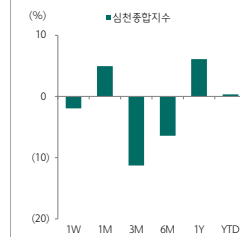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구축비용과 기간 증가, 외부자본의 역할 확대

- 미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는 AI 인프라 금융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 커질수록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력망 보강, 냉각, 용수, 소음 저감, 지역사회 지원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될 여지가 있다. 인허가와 계통접속에 필요한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AI 컴퓨팅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본과 자본회수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면 데이터센터 개발사는 자체 자금만으로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외부 자본의 필요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은 GPU 수요를 실제 설치기반으로 전환하는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 Data Center Watch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미국에서 최소 75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차단됐다. 약 1,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Heatmap Pro에 따르면 2026년 들어 8월까지 지역사회 반대 이후 취소된 프로젝트는 50개를 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지역사회 반대 이후 취소된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약 25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문제가 실제 데이터센터 공급 차질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지역사회의 반대가 모두 프로젝트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Heatmap Pro가 지난 5년 동안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은 약 430개의 건설 프로젝트들을 조사한 결과 약 40% 수준이 취소됐다. 최근에는 취소 확률이 거의 5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지역사회 반대에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직면하더라도 상당수의 프로젝트들은 개발을 지속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 여부보다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대표적인 사례가 미시간주와 텍사스주의 차이다. Heatmap Pro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은 데이터센터의 취소율은 미시간주는 71% 수준이지만, 텍사스주는 17% 정도에 그친다. 주민들의 찬반 강도만으로 이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미시간주에서는 타운십 등 지방정부가 토지용도를 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토지이용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2026년 8월 Augusta 타운십에서는 주민들이 약 9대 1의 비율로 농지에 데이터센터를 허용했던 토지이용 조례를 뒤집었다. Green Charter 타운십은 2025년 12월 조례 정비를 이유로 1년 동안 데이터센터 개발을 중단했고, Saline 시의회도 2026년 1월 Zoning 조례에 데이터센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모라토리엄을 의결했다.
- 텍사스주는 구조가 다르다. Texas Tribune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최소 248개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 수준이 도시나 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계획돼 있다. 기존 데이터센터 가운데 비편입지역 비중이 1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새로운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텍사스의 도시는 Zoning 등을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지만 County는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Hood County에선 주민 반대가 거셌지만 신규 개발 일시 중단 조치가 두 차례 무산됐다. 카운티에 규제 권한이 없고, 조례를 강행할 경우 소송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 최근 텍사스주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 사건이 있었으나, 전면적인 건설 금지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Abbott 주지사는 8월 초 텍사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PUCT)와 텍사스 전기 신뢰성 위원회(ERCOT) 등에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 용수 사용, 세제혜택, 소유구조와 지역사회 대응 등을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점검이 끝날 때까지 신규 대규모 부하의 계통 접속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ERCOT가 검토하던 신규 전력 수요는 약 474GW였으며, 약 90% 수준이 데이터센터 관련 부하였다.

- 신규 계통접속 검증이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순 있다. ERCOT는 대규모 부하를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송전 검토 절차(Batch Zero)를 연기했다. 기존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는 아니다. 신규 계통접속 신청을 검증한 후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성격에 가깝다. ERCOT는 검증에 수개월, 최대 9개월 미만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Batch Zero 연구 결과 제출 시한은 2027년 4월이다. 장기 부하 전망과 신뢰성 평가 발표도 미뤄졌다.
- 미시간주와 텍사스주의 사례는 지역사회 반대가 데이터센터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토지용도 변경 거부나 주민투표처럼 개발 자체를 막을 권한이 강한 지역에서는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도 있다. 둘째, 개발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력, 용수, 지역사회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프로젝트가 사라지기보다 투자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개발이 가능하므로 외부 자본으로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인허가와 계통접속 검증이 길어질 수 있다. 텍사스처럼 가동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자본 회수 시점이 밀리기 때문에 자기자본만으로 감당하기 더 어려워진다. 장기 외부자본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 둘째 유형에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추가 설비투자로 완화할 수 있다. 용수 사용은 폐쇄형 냉각이나 공랭식으로 줄일 수 있고, 소음은 방음설비와 장비 배치 변경 등으로 낮출 수 있다. 전력망 부담은 신규 발전용량, 변전소와 송전망 보강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인트루이스는 올해 4월 데이터센터를 승인하면서 폐쇄형 냉각과 공랭식 칠러, 추가 용수 관련 비용 부담, 환경 영향 보완 등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개발사는 1,575만 달러를 지역사회 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취소되지 않는 대신 주민들의 요구가 추가 설비와 비용 부담으로 전환된 사례다.
- 설비투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토지용도 변경, 농지 보존, 지역 정체성, 주민 수용성 등과 같은 문제는 물리적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주민과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미 에너지부도 2024년 7월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확대가 지역사회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협력을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주민 보상 계획(Community Benefits Plan)을 마련하고 인프라 개발 리스크를 낮추라고 권고했다.
- 두 경우의 공통점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프로젝트 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는 협의와 지역사회 지원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기간까지 늘린다. 토지의 용도 변경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는 로비 등에 비용이 소요될 여지도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등과 Ratepayer Protection Pledge를 체결했다.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관련 비용을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참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신규 발전용량을 직접 건설하거나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연결에 필요한 신규 전력망과 인프라 보강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유틸리티 기업들, 주정부와 별도의 요금체계를 협의하고 실제 사용량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약정한 전력과 관련 인프라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2026년 7월에는 유틸리티, 데이터센터 개발사, 협동조합 및 주정부 등 200개 이상의 기관이 이 계획에 참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참여 범위는 미국 가정과 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약 80%, 인구 기준 약 2억 6,300만 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로 필요한 발전과 전력 인프라 비용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개별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을 넘어 미국 전력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정부 정책에서도 같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GRID Standards는 주정부 지원을 원하는 데이터센터가 신규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용량을 직접 건설하거나 확보하고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하는 계통접속, 송전, 배전, 전력망 보강 등과 전용 설비 비용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방정부에 개발계획을 알리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지역사회 협의계획과 별도의 지역사회 기여계획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이러한 비용 구조를 받아들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1월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전기요금이 올라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과 관련 인프라 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MISO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용량 약 7.9GW를 계약했다. 데이터센터의 확장을 위해 송전망이나 변전소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 경쟁이 GPU와 건물 확보에서 발전, 송전, 배전 등 주변 인프라를 함께 확보하는 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자본뿐만 아니라 시간도 소요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규 송전망을 건설하는 데 입지선정과 인허가 문제로 7~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FERC도 2026년 6월 미국의 6개 주요 지역 전력망 운영 기관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계통접속 규칙을 개편하거나 정당화하도록 요구했다. FERC가 정책 목표로 'Speed to Power'를 강조한 것도 데이터센터를 실제 가동하기까지 필요한 전력 확보 기간이 새로운 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AI를 위한 데이터센터는 더 많은 자본을 오랜 기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 GPU와 건물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발전설비와 전력망, 냉각과 지역 인프라까지 함께 투자해야 한다. 인허가와 계통접속이 늦어지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린다. AI 컴퓨팅 수요가 충분하다면 사업자는 프로젝트를 모두 포기하기보다 자체 자금 이외의 장기 외부자본을 활용할 유인이 커진다.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 지역사회와의 요구와 전력정책 변화로 GPU 이외의 인프라 비용이 증가할수록 고객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것이다. 엔비디아가 금융기관 등 대규모 제 3자 자본을 연결해 고객의 자기자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엔비디아는 확장하는 AI 산업에서 GPU에 대한 잠재수요가 실제 설치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이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고 싶어도 데이터센터, 발전설비와 전력망까지 구축할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GPU는 실제 가동자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고객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면 AI 컴퓨팅에 대한 잠재 수요를 AI 팩토리 건설과 설치기반 확대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최근 오하이오의 오픈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AI 인프라에 필요한 자본의 범위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엔비디아는 SB 에너지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픈AI의 20년 장기 임대와 관련해 SB 에너지에 최대 1,050억 달러 한도의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가 임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재임대, 매각으로도 회수되지 않는 부분을 엔비디아가 부담하는 구조다.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컴퓨팅 용량 기준 약 8 IT-GW를 목표로 하며, SB에너지와 소프트뱅크는 이를 뒷받침할 약 10GW 규모의 신규 발전용량을 건설하기로 했다. 첫 800MW는 2028년 가동 예정이다. 프로젝트와 관련해 약 42억 달러가 전력망 보강에 투입될 것이다. GPU와 데이터센터 건물뿐만 아니라 전력망 자체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금융수요를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AI 인프라 금융은 엔비디아의 기존 경쟁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컴퓨트가 다양한 AI 모델과 워크로드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객과 운영자 사이에서 이전하기 쉽다는 점도 설명했다. CUDA 생태계와 대규모 설치기반을 바탕으로 GPU 활용처가 넓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산의 잔존가치와 재배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런 특성이 경쟁사보다 높은 담보가치나 낮은 자본비용으로 이어진다면 고객은 GPU 성능뿐 아니라 전체 AI 팩토리의 금융비용까지 고려해 엔비디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674.4	26,180.5	53,277.0	3,905.2	2,539.5
1W (%)	-1.4	-2.1	-0.8	-0.6	-2.0
					

주) 8월 21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8월 17일~8월 21일) 리뷰: 높은 미국채 장기물 금리부담

- 지난주 미국증시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약했다. 미국 3대지수는 모두 하락했는데, 높은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때문이다. 미국증시 3대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 -0.8%, S&P 500 -1.4%, 나스닥 종합지수 -2.1% 등이다.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던 S&P 500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1.2%,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2.5%다. 기술주 및 중소형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장주 ETF(VUC)와 가치주 ETF(VTV)는 각각 2.1%, 0.5% 하락했다. 변동성 지수는 12.4% 급등했다.
-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는 각각 4.7%, 5.2%를 상회했다.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초대형 기술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장기채를 발행하고 있다. 미국채 입장에선 초대형 기술기업들의 장기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도 미국채 금리 상승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베네통 재무부 장관은 작년부터 일본 중앙은행에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엔 미국의 엔화 매입 가능성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BOJ의 긴축 가능성은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 여지로 이어지며 미국채 금리를 올리기도 한다.
- 베네통 재무부 장관은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채 재매입 발표를 했다. 규모는 4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20억 달러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베네통 재무장관은 현재 30년물 국채 유동성에 대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금리 수준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수익률이 경제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한 것에 대해선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 미국증시 상승섹터는 헬스케어(+4.3%), 에너지(+2.5%), 소재(+2.3%) 등이다. 헬스케어는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지난주엔 모더나가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에너지는 상승한 유가가 주요 모멘텀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의 경우 금과 은 가격의 상승이 긍정적이었다. 미 재무부의 바이백 등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락 상위 섹터는 유틸리티(-5.5%), 산업재(-3.4%), 정보기술(-3.2%) 등이다. 높은 금리에 취약한 산업들이다.
- M7에선 테슬라(+6%)와 애플(+1.1%)만 상승했다(META -6.8%, NVDA -4.6%, MSFT -2.5%, AMZN -1.5%, GOOGL -0.3% 등). 상대적으로 AI 관련 모멘텀이 약한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테슬라는 네바다주에 신청한 로봇택시 5,000대가 정식 승인된 것이 긍정적이었다. 메타는 소송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타의 플랫폼이 이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는 점과 관련된 소송이 시작됐다. 메타의 사업모델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것이다. AI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메타에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 이번 주(8월 24일~8월 28일) 프리뷰: 잭슨홀미팅, PCE 가격지수, 엔비디아 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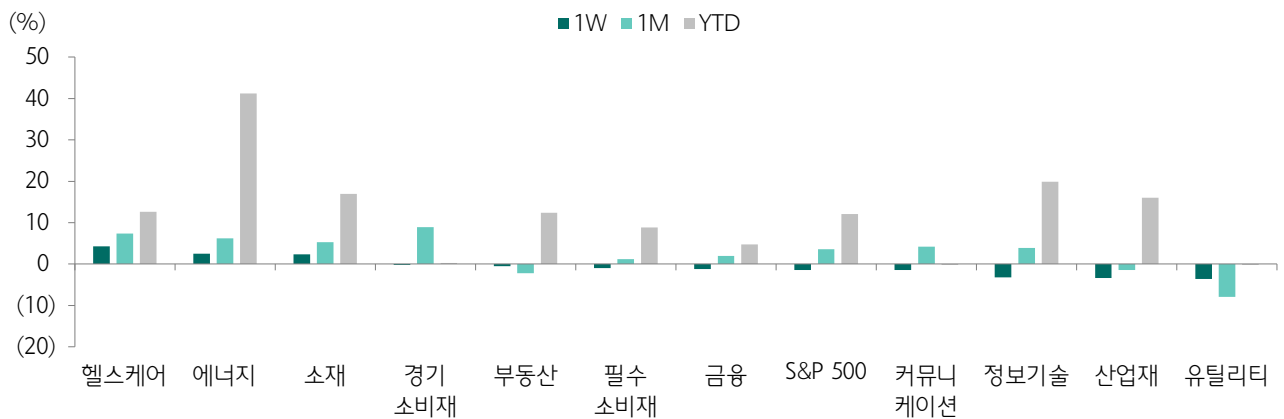
- 이번 주는 금리와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동시에 점검하는 주다. PCE와 잭슨홀에서는 연준의 금리 경로, 엔비디아 실적에선 AI 투자사이클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확인할 것이다.
- 시장참여자들은 현지시각 28일에 있을 캐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첫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 주목할 것이다. 올해 잭슨홀 심포지엄의 주제는 ‘금융 혁신: 결제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다. 캐빈 워시 연준의장의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 물가에 대한 관점,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 전반의 기초,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한 연준의 입장 등이다. 최근 베네토 장관이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면서 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한 캐빈 워시 의장의 평가도 관심사다. 재무부의 국채시장 안정 조치가 금융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준이 이를 통화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준이 보는 물가지표인 PCE 가격지수도 현지시각 26일 발표 예정이다. 잭슨홀미팅 전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PCE 가격지수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의 컨센서스는 YoY +3.6%(6월 +3.6%), MoM +0.1%(6월 -0.1%)다. 7월 핵심 PCE 가격지수의 시장 예상치는 YoY +3.2%(이전치 +3.3%), MoM +0.2%(전월치 +0.13%)다. 헤드라인, 핵심(MoM) 모두 전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다. 13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금융서비스가 강했고, 의료서비스나 항공로 등은 약했다.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에서 물가 상승이 일부 품목에 집중됐는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시장참여자들이 엔비디아 실적에서 주목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은 매출총이익률과 베라루빈 양산 진행 여부, 베라루빈 울트라X의 개발 일정과 HBM 구성, 800VDC 도입 일정,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등이다. (FactSet 기준) 엔비디아의 FY 2Q27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920억 달러(YoY +96.9%), 매출총이익률 75%(YoY +2.3%p), 영업이익률 66.1%(YoY +1.7%p), EPS 2.09 달러(YoY +98.8%), 영업현금흐름 441억 달러(YoY +187.2%), 자본지출 18억 달러(YoY -8%), 잉여현금흐름 423억 달러(YoY +267.2%) 등이다. 사업부별 매출 컨센서스는 데이터센터 850억 달러(YoY +106.8%), 엣지 컴퓨팅 66억 달러다. 데이터센터 사업부의 부문별 매출은 하이퍼스케일러 424억 달러, AI 클라우드, 산업재 및 엔터프라이즈 424억 달러 등이다.
-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블랙웰의 수요가 강하고,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4개 분기 실적발표 후 엔비디아는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다. 시장참여자들이 더 높은 성장과 수익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베라루빈의 양산 진척 정도가 관건이다. 베라루빈 양산이 본격화되고 수익성이 좋은 블랙웰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발표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에 대한 언급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최근 대규모 외부 자본을 활용해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I 인프라의 자본조달 병목을 완화해 엔비디아의 설치기반과 GPU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시장참여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신용지원이나 수익공유가 고객의 CPU 구매를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순환금융이다. 이번 컨퍼런스콜에서는 수요의 질적인 부분과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통해 엔비디아가 얻을 수 있는 단기 이익 등에 주목할 것이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25일 7월 건축허가(예상치 1,443,000 건, 이전치 1,374,000 건) /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9,500 건) /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이전치 90.8) / 7월 신규주택 판매(이전치 628,000 건), 26일 미국채 2년물 입찰 / 7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3.7%) / MoM(이전치 -0.1%) / 7월 핵심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3.3%) / MoM(이전치 0.1%) / 2분기 GDP QoQ(예상치 1.5%, 이전치 2.1%) / 7월 내구재 주문 MoM(이전치 0.3%) / 7월 핵심 내구재 주문 MoM(이전치 0.7%) / EIA 주간 원유재고, 27일 잭슨홀미팅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8일 8월 미시간대학교 1년 인플레이션 기대(예상치 4.3%, 이전치 4.3%) / 5년(예상치 3.3%, 이전치 3.3%) / 8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예상치 51, 이전치 55.2) / 8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기대(예상치 50.6, 이전치 55.4) 등이 있다.
- 25일 INTU / HEI / ZM / DKS / SMTG, 26일 NVDA / CRWD / CRM / SNPS / A / VEEV / P / WSM / HPQ / OKTA / NTNX / SJM, 27일 MRVL / ADSK / WDAY / DG / AFRM / DLTR / ULTA / BURL / IREN / HRL / LULU / ESTC / S / GAP / BILI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8/21)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674.4	0.4	-1.4	3.5	2.7	11.4	18.7	12.1
나스닥	미국	26,180.5	0.4	-2.1	4.8	-0.6	14.5	21.8	12.6
다우	미국	53,277.0	1.0	-0.8	2.6	5.3	8.3	16.8	10.8
STOXX600	유럽	654.2	0.6	-0.6	1.5	4.6	4.0	16.5	10.5
KOSPI	한국	6,913.0	0.9	1.5	3.3	-11.9	15.8	118.2	64.0
KOSDAQ	한국	801.9	-4.6	-6.9	7.2	-30.9	-31.2	2.5	-13.3
상해종합지수	중국	3,905.2	0.0	-0.6	2.4	-5.0	-5.2	2.1	-1.6
심천종합지수	중국	2,539.5	0.5	-2.0	5.0	-11.3	-6.4	6.1	0.3
항테크지수	홍콩	26,009.5	1.2	3.6	4.2	1.6	-2.2	2.6	1.5
TOPIX	일본	4,067.3	0.2	-3.1	1.4	4.5	6.6	31.2	19.3
니케이 225	일본	66,016.4	-0.3	-3.9	2.2	4.2	15.2	54.8	31.1
니프티 50	인도	24,252.0	0.1	-0.5	2.0	2.2	-4.6	-2.5	-7.2
Vietnam	베트남	1,768.1	2.0	2.3	4.9	-5.8	-5.3	7.5	-0.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8.21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헬스케어: 모더나, 머크의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3상 임상에서 흑색종 재발 억제 목표를 달성. 섹터 전반 투자심리 개선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유틸리티: 이란 분쟁 장기화로 국제금리가 연고점 수준까지 오르며 부채 부담과 배당 매력 악화로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8/18	구글, 2027년부터 픽셀 제품 생산 중국 외 이전 구글이 2027년부터 모든 픽셀 스마트폰·시계·이어버드 생산을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 베트남에서 고급 픽셀폰 생산에 성공하며 이전 일정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짐. 실현 시 삼성에 이어 스마트폰 생산을 중국에서 분리하는 두 번째 글로벌 브랜드가 됨. 구글은 픽셀폰을 제미니 AI 앱의 핵심 포털로 보고 메모리 가격 급등에도 올해 출하량을 작년(1,200만 대) 대비 8~10% 늘릴 계획. 애플의 아이폰 가격 인상으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도 기대
8/18	스페이스X,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 600억 달러 인수 완료 스페이스X가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는 절차를 8월 14일자로 완료. 역대 최대 규모 테크 M&A 중 하나로, 스페이스X AI 부문의 기업 고객 확보 강화와 코딩·에이전트 AI 역량 확대가 목적. 커서는 인수 완료로 스페이스X의 대규모 GPU 인프라에 접근 가능해졌으며, 양사는 이미 코딩·금융·법률에 특화된 공동 모델 그록 4.5를 공개한 바 있음. 머스크는 내부 회의에서 "9월이면 AI 매출이 스페이스X의 다른 모든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
8/18	테슬라, 이달 오스틴서 사이버캡 출시 준비 테슬라가 이르면 이달 중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페달, 스티어링휠 없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사이버캡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이 보도. 직원 대상 일반도로 탑승 서비스로 시작한 뒤 며칠 후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에 편입할 예정. 테슬라는 최근 시험 주행, 사설도로 직원 탑승 alc 응급대응요원 교육 등 출시 준비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6월부터 공도 시험 주행을 시작한 바 있음
8/19	미국 7월 제조업 생산 시장 예상 부합, AI 관련 장비 생산 호조 연준, 7월 제조업 생산지수가 MoM +0.2%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발표. 자동차/부품이 2.1% 감소했으나 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0.4%로 견조. 기업용 장비 생산이 +0.8% 증가했으며 연준은 정보처리 장비와 산업용 장비 상승이 운송장비 하락을 상쇄했다고 설명, AI 투자 확대와 유관한 것으로 풀이. 산업생산은 +0.2%로 예상치(+0.3%)를 소폭 하회했으며 제조업 가동률은 76.0%로 0.1%p 상승
8/20	구글, 마벨과 AI 반도체 동맹. 최대 17조원 신주인수권 취득 구글이 마벨 테크놀로지와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주 5,900만주를 주당 206.58달러, 총 121억8,000만 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 신주인수권을 전량 행사 시 구글은 마벨 지분을 마벨 제품 1,200억 달러 구매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구조. 구글은 그동안 TPU 관련 맞춤형 반도체 공급을 브로드컴에 맡겨왔으나 이번 계약으로 공급처 다변화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 소식에 마벨 주가는 장중 9% 급등
8/21	트럼프, 2030년 우주 발사 연 1,000회 목표 각서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미국의 상업용 우주 발사 횟수를 2030년까지 연 1,000회로 확대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 지난해 178회에서 약 6배 확대가 목표. 각 기관에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신속 처리, 민간과의 우주 수송 인프라 공동 개발, 무선주파수 대역 확보 등을 지시했으며 90일 이내 새로운 연방 재진입 부지 지정도 명령. NASA에는 달, 화성 민간 수송 지원과 인간 화성 파견 경로 모색을 지시. 지난해 스페이스X 단독으로 170회 발사를 기록하는 등 상업 우주 발사가 급성장하는 추세
8/21	마이크론, 미국 최초 메모리 전문 연구소 설립 마이크론이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미국 최초의 메모리 전문 연구 허브 '마이크론 리서치 랩'을 설립한다고 발표.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내년 착공 예정. 차세대 메모리 기술, 고성능 연산 아키텍처, 첨단 패키징, 미래 제조 공정 등이 주요 연구 분야. 기존 발표한 2,500억 달러 제조 투자와는 별개의 투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뒤처진 HBM 경쟁에서 기술적 추격을 위한 승부수로 풀이되며,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도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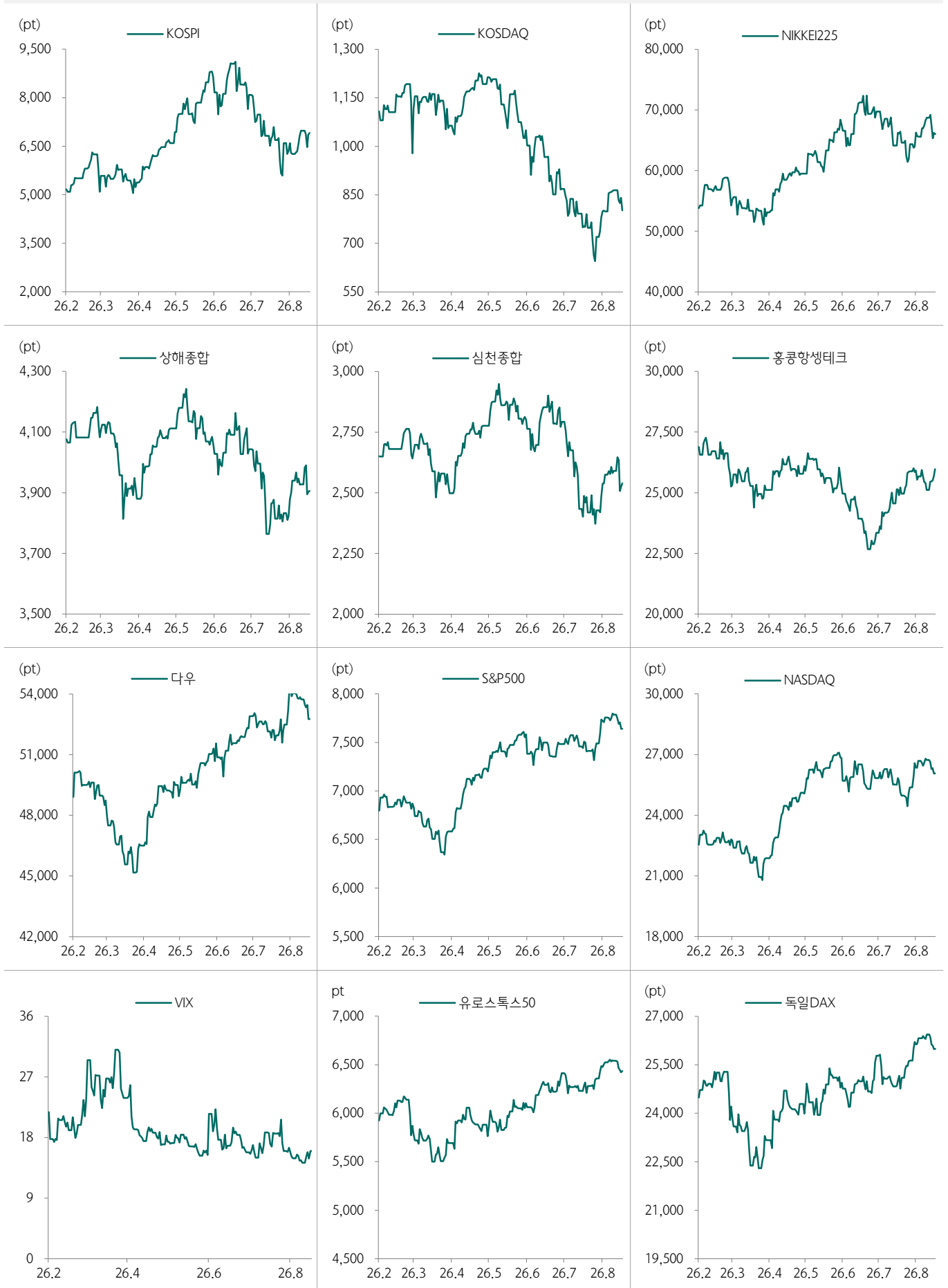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8월)

일	화	수	목	금
3	4	5	6	7
BRK PLTR VRTX MAR WMB OKE TKO ON	SPCX AMD CAT ANET AMGN MCD GILD BKNG PFE BP	LLY NVO SNDK WDC DIS SHOP UBER APP CVS CRCL	COP PH HWM NET DDOG CEG ABNB LNG	VST TTWO PPL
10	11	12	13	14
SPG RCLB STE AMTM	TDG LITE CAH SMC		AMAT ROST TPR	
17	18	19	20	21
BHP FN	HD BIDU ZTO TOL	ADI TJX LOW TGT EL BULL	WMT BABA DE NTES ROST FUTU AAP	
24	25	26	27	28
PANW	INTU HEI ZM DKS SMTC	NVDA CRWD CRM SNPS A VEEV P WSM HPQ OKTA NTNX SJM	MRVL ADSK WDAY DG DLTR ULTA IREN LULU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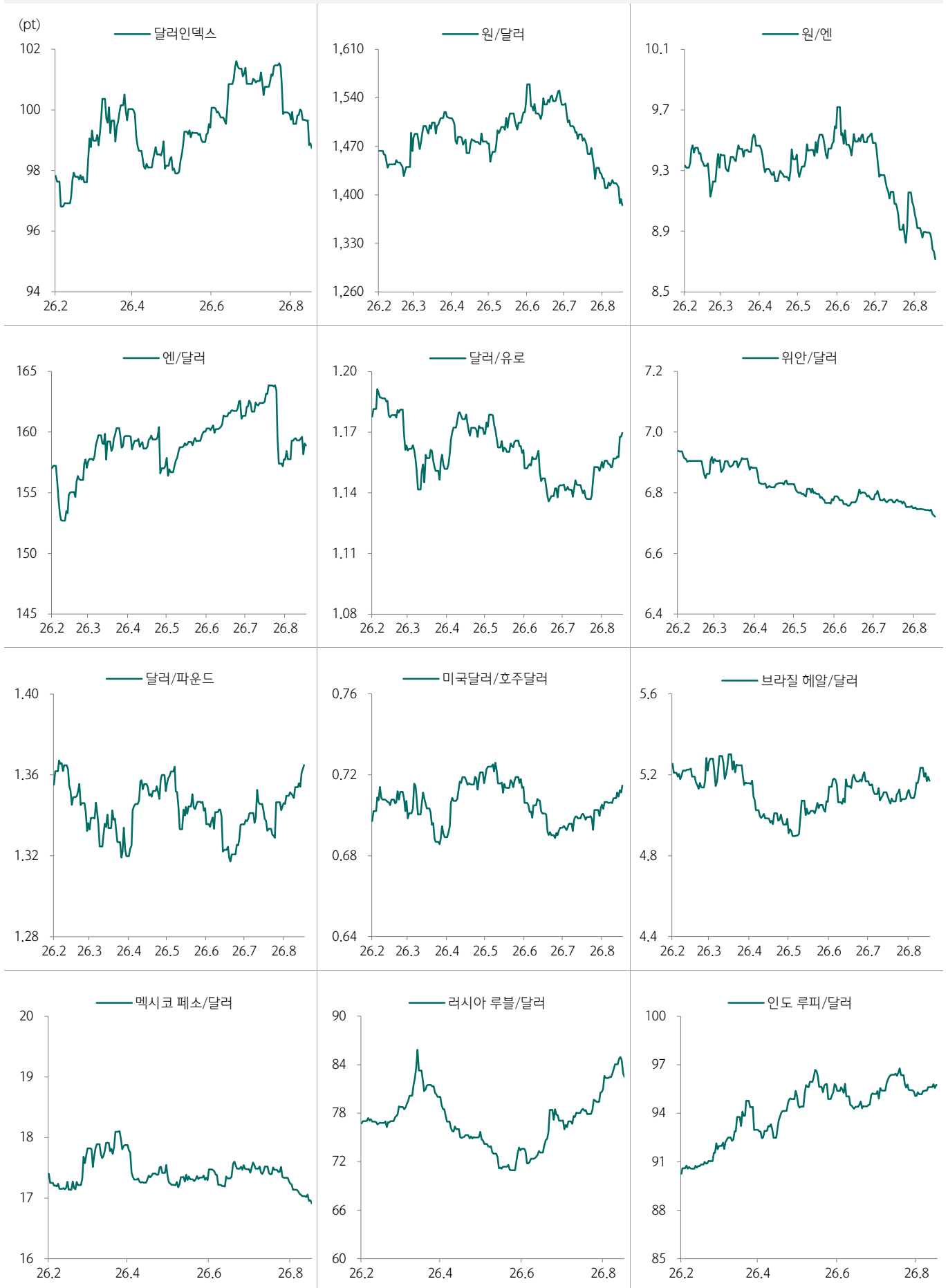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8/25(화)	- ADP 주간 고용변화 보고서 (이전 8.30K) 8월 CB 소비자신뢰지수 (이전 90.8)
8/26(수)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YoY 이전 3.3%) 7월 근원 소비지출물가지수 (MoM 이전 0.1%) 2분기 GDP [P] (QoQ 이전 1.5%)
8/27(목)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8/28(금)	8월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전 4.3%)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이전 51.0) 8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이전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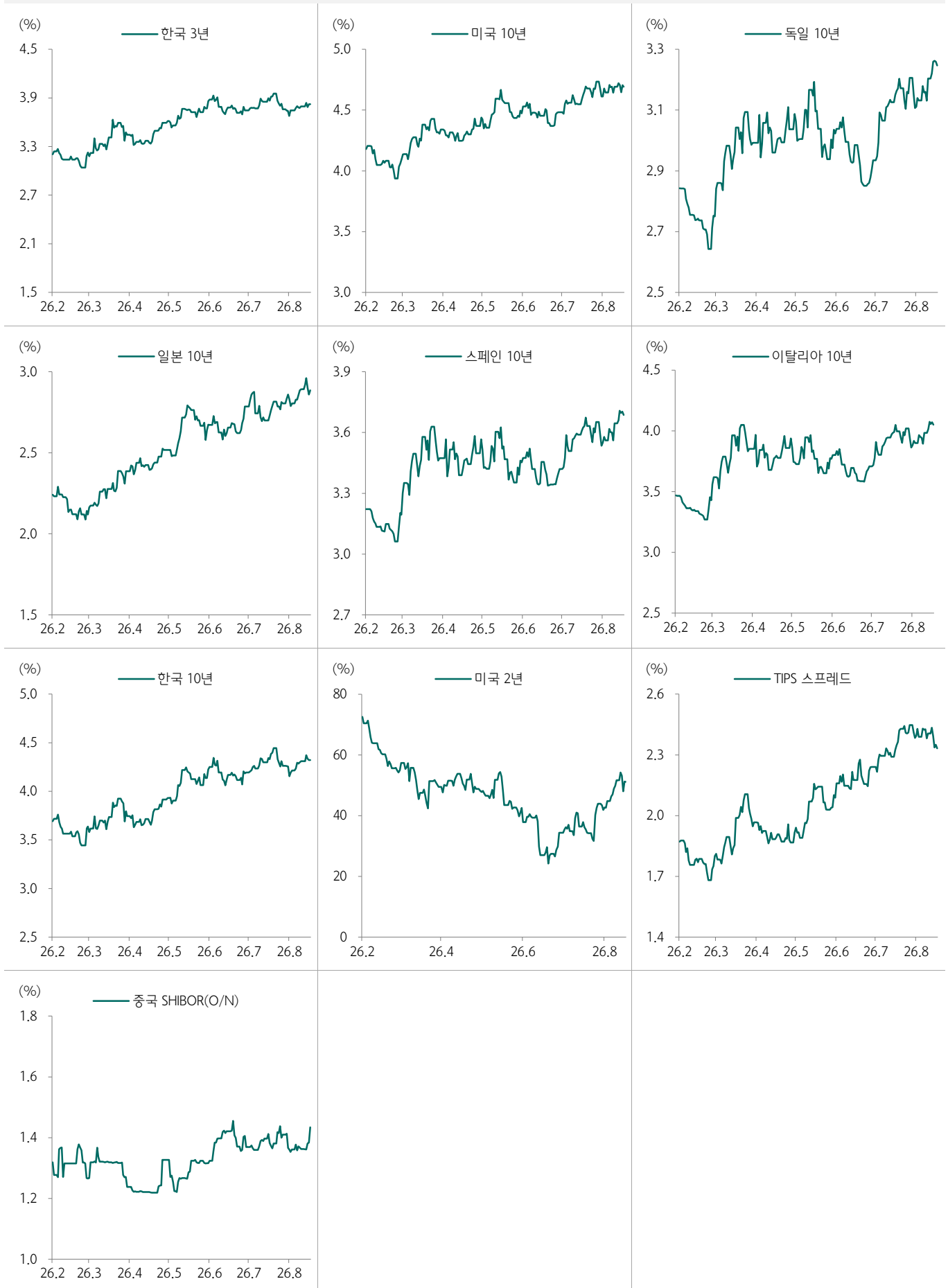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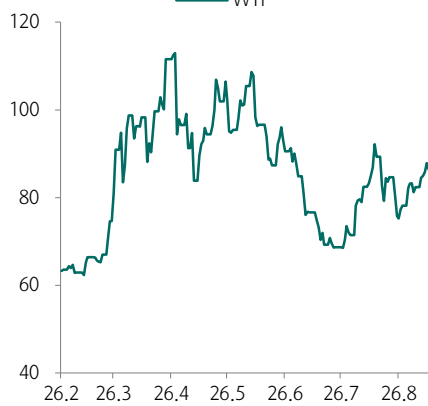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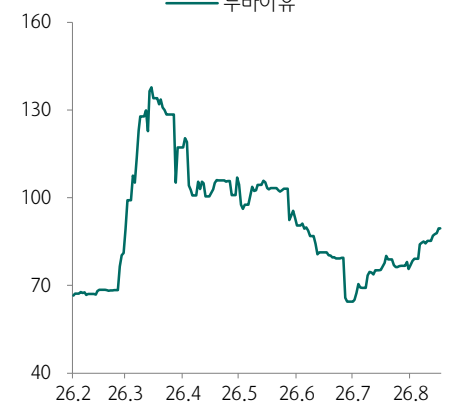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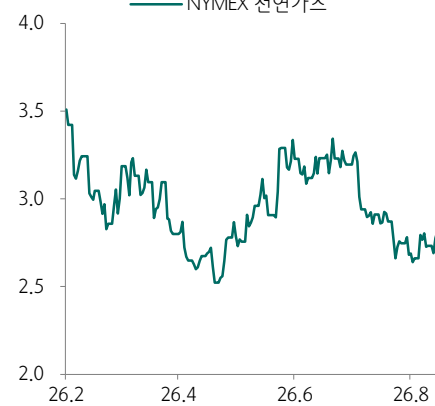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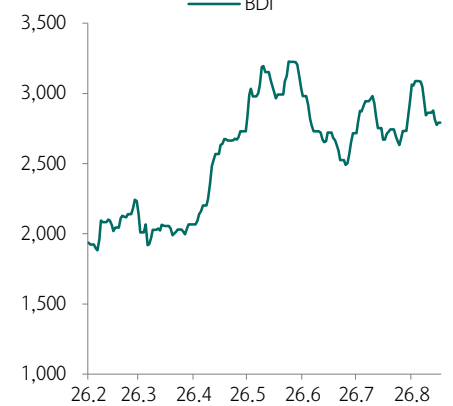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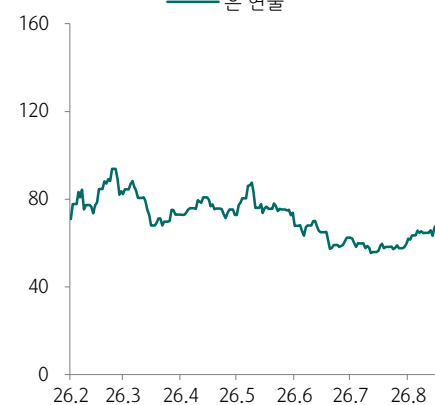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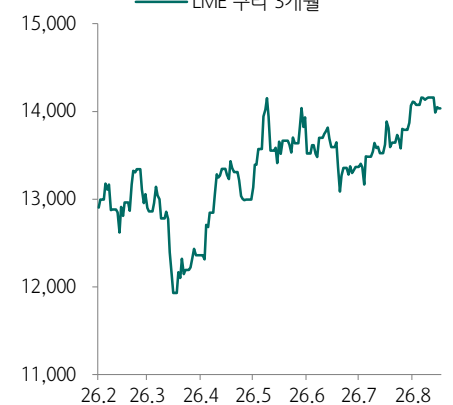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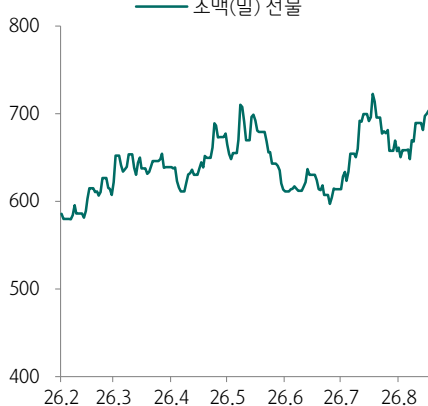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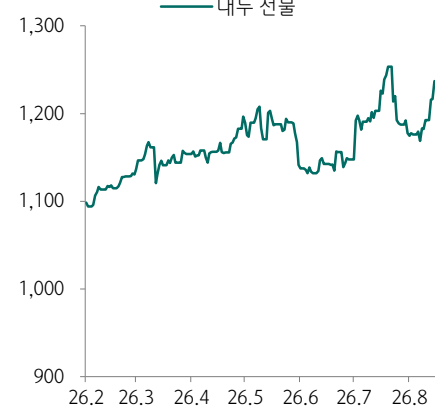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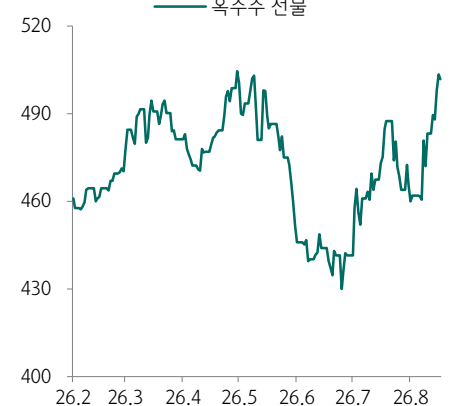
(센트/부셀)



(센트/부셀)



(센트/부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